

'95. 10.

정춘수 동상 철거건의 처리경위

3. 1공원 동상건립 경위

□ 동상건립 취지

- 기미 3.1운동 민족대표중 본도출신 6인의 동상을 건립 공원화 3.1정신을 계승 민족사관의 주체성을 확립 도민화합의 긍지를 드높이고 기풍을 조성
- 건립대상 : 손병희, 권동진, 권병덕, 신흥식, 신석구, 정춘수

□ 동상건립 현황

- 위 치 : 청주시 수동 159-1 (우암산록)
- 부 지 : 1,900평
- 사업집행 : 청주시
- 동상규모 : 높이 500cm (대석 250cm, 입상 250cm)
- 사 업 비 : 99,500천원 (동상제작 63,000, 조경 36,500)
 - 국 비 : 5,000천원
 - 도 비 : 53,000천원
 - 시 비 : 41,500천원
- 동상제작 : 홍익대학교 박석원 교수

□ 동상건립 경위

- 1979. 10. 29 : 3.1운동 민족대표(충북출신)동상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1명)
 - 민간추진위원 : 위원장 박상진 등 13명 (학계 2, 민간단체 6, 문중대표 5)
 - 실무추진위원 : 위원장 부지사 등 8명 (학계 1, 언론계3, 관계 4)
- 1980. 2. 20 :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개최(4차) — 위치 결정 (우암산록)
- 1980. 3. 1 : 기공식
- 1980. 3. 25 : 취지문 및 공적문안 확정
- 1980. 8. 15 : 준공식

추진과정

□ 공적조회

- 조 회 : 1979. 12. 18 → 청주지방원호지청 회신 (1980. 1. 19)
※ 정춘수 (상훈 비대상)

□ 공적문안 작성 및 확인

- 문안 작성 : 충북대학교 조건상 교수, 교육대학 이종춘 교수
- 공적문안 확인 : 광복회, 한국민족운동연구소, 한국사상연구회

□ 동상건립 심의 및 확인 — 문화공보부

- 문공부 심의 : 공적문안, 동상모형, 설계도 → 심의필 통보받음
- 동상건립 확인 : 확인 신청 (1980. 8. 9) → 문공부 확인서접수(1980. 12. 29)

□ 동상제막식

- 일 시 : 1980. 8. 15
- 참 석 : 천도교 (100명), 감리교 (100명), 광복회 (30명)
- 광복회장, 천도교령으로부터 → 도지사, 추진위원장에 감사패 전달

□ 준공기(竣工記) — ”삼일공원”을 새긴 돌 뒷면

이 공원은 3.1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충북출신 여섯분의 동상을 건립한 곳이므로 3.1공원이라
이름하였다.

동상철거 건의 및 회신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 회장 신경득

□ 건 의

- 1993. 11. 3 정부합동민원실 김기창기념관 건립반대 종합건의
 - 김기창 기념관 건립반대
 - 한봉수 의병대장 생가복원
 - 3.1공원 정춘수 동상 철거
 - 신채호 선생 동상건립
- 1993. 11. 10 도문화체육과에 정부합동민원실과 동일건 접수

□ 회 신

- 1993. 11. 13
 - 김기창 기념관 건립반대 : 확장건립계획 미접수
 - 한봉수 의병대장 생가 복원 : 생가 철거후 현대식 건물 신축으로 복원 불가
 - 3.1공원 정춘수 동상 철거 : 관계기관에서 독립유공자를 광복 50주년이 되는 95년도까지 전면 재심의 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
 - 신채호 선생 동상건립 : 민간차원에서 건립 추진중

□ 1차 건의

- 1994. 10. 19 : 동상철거 건의 → 보훈처와 협의중임을 회신 (1994. 10. 21)
- 1994. 10. 21 : 보훈처에 정춘수 선생에 대한 공적 및 서훈 재심의 계획여부 질의
- 1994. 10. 29 : 국가보훈처 회신
 - 민족대표 33인중 1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사실 없음
- 1994. 11. 8 : 보훈처 회신내용 통보 (청주시)

□ 2차 건의

- 1994. 11. 17 : 동상철거 건의 → 자료수집중 회신 (1994. 11. 22)
- 1994. 11. 22 : 정춘수 행적 관련자료 송부 요청
 - 교육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5. 2. 10 : 정춘수 행적 관련자료 송부 요청
 - 독립기념관, 광복회, 민족대표33인 기념사업회, 청주보훈지청

□ 3차 건의

- 1995. 2. 21 : 동상 조기철거 항의민원 접수
- 1995. 2. 25 : 회신
 - 정부의 관련부처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의견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제출한 자료나 요구만을 토대로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는 고관함.
- 1995. 3. 2 : 세부자료(친일행적 사실여부 조회) 협조요청
 - 문화체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차 건의

- 1995. 7. 18 : 동상철거촉구
- 1995. 7. 24 : 회신 (3차회신과 동일함을 회신)

정춘수에 대한 자료 수집

국가보훈처 회신 ('94. 10. 29)

- 민족대표 33인중 1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사실 없음

교육부장관 : 질 의 ('94. 11. 22)

- 회신없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94. 12. 15)

- 2001년 간행예정인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증보판 수록 원고내용 송부
 -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
 - 3.1 운동 독립선언서 서명 → 1년6월 징역형 선고
 - 1934년 홍업구락부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105일동안 고문
 - 출옥후 1938년 경성기독교연합회의 부위원장 피선
 - 1939년 조선감리교 제4대 감독으로 피선
 -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

청주보훈지청 회신 ('95. 2. 13)

- 행적에 관한 자료없음 통보

독립기념관장 ('95. 2. 22) - 자료송부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둘베개 발행) "친일파99인" 부분복사
- 기독교대백과사전 1021면, 1022면 복사

□ 광복회장('95. 2. 28) - 자료송부

- 민족정기의 심판(혁신출판사)
- 반민자 죄상기(백엽문화사)
- 친일파 군상(민족정경문화연구소편)
- 친일파 99인(돌베개 발행)

□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95. 2. 10 자료 요청)

- 회신없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회신('95. 3. 13) - 자료송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 원고내용 송부
- 2001년 간행예정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 수록예정 원고내용 송부
 - 초간원고에 추가된 내용
 - 1934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105일동안 고문
 - 출옥후 1938년 경성기독교연합회의 부위원장 피선
 - 1939년 조선감리교 제4대 감독으로 피선
 -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

□ 문화체육부 회신('95. 3. 16)

-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규명, 판단적절 사료 통보

□ 국사편찬위원회('95. 3. 23) — 자료송부

- 1938 ~ 1941년 동아일보, 매일신보 보도내용 등 행정기록 송부

□ 정부기록보존소('95. 4. 13)

- 관련자료 미보존

동상 철거 규탄대회 및 토론회

□ 규탄대회

- 1995. 2. 20 : 16:00경 3.1공원에서 규탄대회 및 정춘수 동상에 일장기를 덮고 친일행각 표지판 설치 (18시 철거)
- 1995. 3. 1 : 11:20 ~ 14:00 3.1공원에서 200여명 참석행사 및 동상철거 시도
- 결과 : 공무원 및 경찰병력 동원 저지

□ 토론회

- 1995. 3. 8 : MBC TV 철거문제 토론회
- 1995. 4. 14 : 연대회의 주최 동상철거 시민토론회 (30명참석)
- 참석자 : 도종환, 이두형, 한상길, 경성호

□ 도지사 면담요청

- 면담신청 : 1995. 8. 2
- 면담일시 : 1995. 8. 9(수) 10:00~11:00
- 내 용 : 동상철거 촉구 요청 및 도의 입장 청취
- 참 석 자 : 7명 (연대회의 4, 도 3)
- 면담결과 : 광범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 금년말까지 철거여부 결정 정

□ 정춘수의 인적사항 (1875 ~ 1951)

- 출 생 지 : 청원군 가덕면 두산리
- 학.경력 : 경성신학교, 협성신학교졸(감리교 목사)
 - 1919 :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 서명 (1년6월 징역선고)
 - 1934 :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구금 (105일)
 - 1938 : 경성기독교 연합회 부위원장
 - 1939 : 경성기독교 제4대 감독
 - 1941 :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
 - 1951. 10. 27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 죽손 정인환 집에서 사망 (77세)

□ 시민단체 주장 친일내용

- * ○ 1938. 9. 3. 흥업구락부 사건관련자 전원 전향성명서 발표
 - 부일 협력 시작 : 활동자금 2,400원 국방비로 헌납
- 1938. 10. 한국감리교를 일본 메소디스트 교회에 종속시키기 위한 일선감리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1939. 9. 일제의 비호속에 조선감리교 제4대 감독 피선
 - 감리교 혁신안 발표 (민주주의, 자유주의 배경, 일본정신 함양, 일본적 복음 천명, 교도의 지원병 다수 참가 결의)
- 1941. 3. 혁신요강 실천, 고도국방국가 완성에 매진 선언 (일본의 교단규칙에 따른 새교단 규칙 마련)
- 1941. 10. 10. 교역자 신도대표 20명과 부여성중 조영 근로봉사
- 1941. 10. 21. 교회의 철문, 철책을 헌납하는 종교보국 5개항 결의 실천
- 1942. 2. 13. 정춘수 통리자 명의의 황군위문 및 철문헌납건 제하의 공문 각교구장에 하달
- 1944. 3. 교단상임위 애국기 헌납 및 교회병합 실시에 관한건을 통과시켜 교회를 동폐합시키고 나머지를 팔아 전투기를 헌납하는 행위 실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수정·증보판 원고

— 2001년 발행예정인 원고 내용임 —

※ 정춘수(鄭春洙)

1875(고종 12)~1951. 기독교인.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명옥(明玉). 호는 청오(靑梧). 충청북도 청주출신. 석준(錫駿)의 아들이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이다. 어려서 한문을 배우고 함경남도 원산에서 영국인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에 입교하였으며, 그뒤 상경하여 경성신학교(京城神學校)·협성신학교(協城神學校)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어 전국 각지를 돌며 포교활동과 민족독립운동을 벌였다. 1919년 원산 남촌동교회(南村洞教會) 목사로 재직하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뒤에도 계속 독립운동과 종교운동을 벌여, 1934년 흥업구락부사건(興業俱樂部事件)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105일 동안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출옥후 1938년 경성기독교연합회의 부위원장에 피선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조선감리교 제4대 감독으로 피선되었다.

1941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3.1운동秘史(李炳憲, 時事時報社, 1959), 독립운동사 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이만열외, 보성, 1986), 朝鮮 三·一獨立騷擾事件(朝鮮憲兵隊司令部, 嚴南堂書店, 1969), 每日新報, 基督教新聞 <朴敏泳>